

## 1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 2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윤동주문학관-서시 시비

## 3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여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 시비-김수영문학관

## 4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성북예술창작터-최순우 옛집-조지훈 옛집-성북선잠박물관(판소리 공연)-수연산방-심우장-길상사  
\*어연경 명창, 조풍류 고수의 판소리 한마당

## 5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통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 6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 7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 앞 처가집 터-낙원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 8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바위역-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 9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 백화점-포스트 타워(옛 중앙우체국)-유네스코 회관-명동예술극장-아시아 미디어센터  
(옛 수도극장, 스키라극장)-종로 타워(옛 화신백화점)-체신기념관-원서공원

## 10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 11 손창섭의 길

문학의집 서울-외교구락부 터-남산케이블카 승강장-회현 제2시범아파트-회현 사랑채-회현동 호텔촌-회현동 은행나무-\*퓨전 국악창작그룹 블랙싸인 국악공연

## 12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 초등학교-낙산 공원-예술가의 집-한무숙 문학관

## 13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도-청진동-관훈동-운현궁

## 14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화도서관-시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김명남 명창, 조풍류 고수의 판소리 한마당

## 15 정비석의 자유부인

세종로-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영성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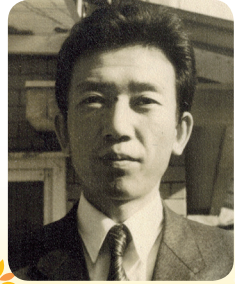
## 16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관



## 코스 순서

- ① 서울시립미술관
- ② 덕수궁 돌담길
- ③ 광화문 지하도
- ④ 청진동
- ⑤ 관훈동
- ⑥ 운현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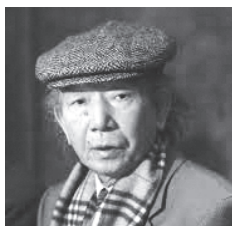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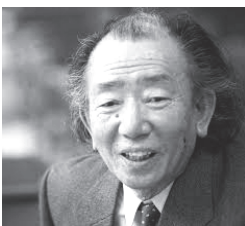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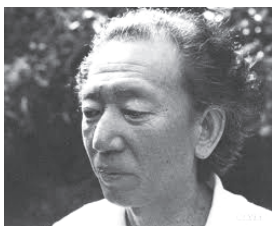




## ▶ 일 정 표

회 차	일 정	주 제	코 스	해 설	신청일
1	6/12 (수) 10시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이경철	6/3
2	6/19 (수) 10시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수성동 계곡-윤동주문학관	방민호	6/10
3	6/29 (토) 14시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외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김수영문학관	진은경	6/17
4	7/3 (수) 10시	백석의 현당나귀	최순우옛집-조지훈옛집(방우산장)-선잠박물관(판소리공연)-이태준옛집(수연산방)-심우장-박태원집터-길상사	박미산	6/24
5	8/31(토) 18시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동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황미선 신수경	8/19
6	9/4 (수) 10시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박미산	8/26
7	9/14 (토) 14시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	교보 앞 차가집 터-원삼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맹문재	9/2
8	9/25 (수) 10시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버우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권해상	9/16
9	10/5 (토) 14시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포스트타워(옛 중앙우체국)-유네스코회관-명동예술극장-아시아 미디어센터(옛 수도극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체신기념관-원서공원	박정아	9/23
10	10/12 (토) 14시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등학교	김미선	9/30
11	10/23 (수) 10시	손창섭의 길	남산 문학의 집 서울-외교구락부 터-남산케이불가 승강장-회현 제2시범아파트-회현 사랑채-회현동 호텔촌-회현동 은행나무	한이수	10/14
12	10/30 (수) 10시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초등학교-낙산공원-예술가의 집-한무숙문학관	전혜경	10/21
13	11/6 (수) 10시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도-청진동-관훈동-윤현궁	최서향	10/28
14	11/16 (토) 14시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화도서관-시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	이지현	11/4
15	11/20 (수) 10시	정비석의 자유부인	세종로-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영성문)	강영진	11/11
16	11/30 (토) 14시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	심흥식	11/18

## ▶ 연보 및 작가 소개



### 연보

#### ▶ 1936년

4월 13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생. 아버지 최국성 어머니 김경숙의 4남 2녀 중 장남.

#### ▶ 1943년

회령북국민학교 입학

#### ▶ 1947년

아버지를 따라 함경남도 원산시로 이주

#### ▶ 1950년

12월 원산항에서 해군함정 LST를 타고 전 가족 월남.

#### ▶ 1951년

피난지 부산에서 한 달쯤 피난민수용소에서 생활한 최인훈 일가는 인척이 사는 목포로 이주

#### ▶ 1952년

목포고등학교를 3월에 졸업. 피난 수도 부산으로 돌아와 서울대 법대 입학. 그해 여름 고향이야기로 첫 소설 '두만강'을 쓰고 1970년에 발표.

▶ 1952년

서울로 이주. 가족과 함께 청파동에 정착.

▶ 1956년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의 등록을 포기함으로써 그의 최종학력은 서울대학교 중퇴.  
7년간의 군 복무.

▶ 1959년

〈자유문학〉 10월호에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 「라울전」이 추천되어 문단에 나온다.

▶ 1960년

〈새벽〉 11월호에 「광장」을 발표.

최인훈은 「광장」을 1961년 〈정향사〉를 통해 단행본으로 선보인 뒤, 1968년 〈신구문화사〉의 『현대 한국문학 전집』을 거쳐, 1973년 〈민음사〉를 통해 다시 내놓고, 1976년 〈문학과지성사〉에서 전집을 출간할 때 다시 펴냈다.

「광장」은 출판사를 달리해 펴낼 때마다 작가 자신에 의해 손질이 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선 200자 원고지 600매 정도이던 작품의 분량이 나중에는 800매로 늘어나고, '내용과 형식'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 1962년~1964년

「구운몽」, 「7월의 아이들」, 「열하일기」, 「회색의 의자」, 「크리스마스 캐럴」, 「금오신화」, 「전사연구」 발표

▶ 1965년

「문학 활동은 현실 비판이다」 첫 평론을 〈사상계〉에 기고

▶ 1966년~ 1967년

「서유기」 장편소설, 「총독의 소리」 연작소설

▶ 1969년

박태원의 소설을 패러디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내놓았다.

▶ 1973년

〈중앙일보〉에 「태풍」을 연재 형식으로 발표하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세계작가 프로그램’의 초청으로 9월 도미한다. 이후 4년간 미국에 머물다가 귀국.

▶ 1977년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2001년 5월 정년퇴임.

▶ 1979년

문학과지성사에서 『최인훈 전집』을 출간

▶ 1994년

「화두」 발표

▶ 2012년

〈바다의 편지〉라는 선집을 발표.

▶ 2018년 7월 23일 (82세)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투병 중 타계했으며, 장례는 문학인장으로 치러짐.



▶ 주요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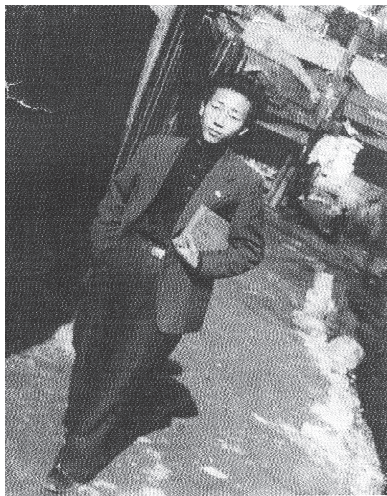
『광장』, 『구운몽』, 『회색인』, 『서유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태풍』, 『크리스마스 캐럴』, 『가면고』, 『하늘의 다리』, 『두만강』, 『웃음소리』, 『총독의 소리』, 『화두』 등의 소설과 『옛날 옛적에 휘어이휘이』, 『둥둥 낙랑둥』 등의 희곡집, 그리고 『유토피아의 꿈』, 『문학과 이데올로기』, 『길에 관한 명상』 등의 평론을 발표했다.

『광장』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으로, 『회색인』이 영어로, 『옛날 옛적에 휘어이휘이』가 영어와 러시아어 등으로 번역, 간행되었다.

▶ 주요수상

제11회 동인문학상(1966), 한국연극영화예술상 희곡상(1977), 중앙문화대상 예술부문 장려상(1978), 서울극평가그룹상(1979), 제6회 이산문학상(1994), 서울시문학상(1994), 문화훈장 대통령상(1994), 한국일보 희곡상(1994), 제1회 박경리문학상(2011), 금관문화훈장 추서(2018)

## 작가 소개



최인훈은 1936년 4월 13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다. 유년기를 보낸 회령은 러시아와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야망을 가진 일본에게 있어 중요한 장소였다. 회령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무역이 성행하는 등 잡다한 문화가 뒤섞인 도시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은 어린 최인훈의 내면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1943년 그가 회령북국민학교에 입학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해방이 된다. 회령은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해방과 함께 곧바로 소련군이 들어온다. 이 과정에서 일본 잔류군과 시가전을 벌이기도 했다. 시가전을 피해 감시 시골로 떠나 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땐 공산정권이 들어서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다른 고장으로 이주할 결심을 굳히고 원산으로 향한다.

이후 최인훈은 원산 시립도서관에서 소설과 사상서를 손에 잡히는 대로 읽으며 청소년기를 보낸다. 그가 열네 살 나던 해인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그의 가족은 원산항에서 해군함정 LST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온다. 1951년 한 달쯤을 부산 피난민수용소에서 생활한 최인훈 일가는 인천이 사는 목포로 이하고, 이듬해 목포고등학교에 입학해 1년 동안

다닌다. 1952년 피난 수도 부산에 있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지만 '대학'은 지적 자극을 주지 못해 1956년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 등록을 포기한다. 이로써 그의 최종학력은 서울대학교 중퇴로 남는다. 그는 대학을 그만두고 입대해 7년간 복무한다.

최인훈은 피란수도 부산에서 대학 재학 중에 작가 자신의 첫 소설에 해당하는 '두만강'을 집필하고, 1959년 군 복무 중에 'GREY 구락부 전말기', '라울전'이 안수길 선생에 의해 '자유문학'에 추천되어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1960년 11월호 <새벽>에 '광장'을 발표한다. '광장'은 시기적절하고, 문제적인 작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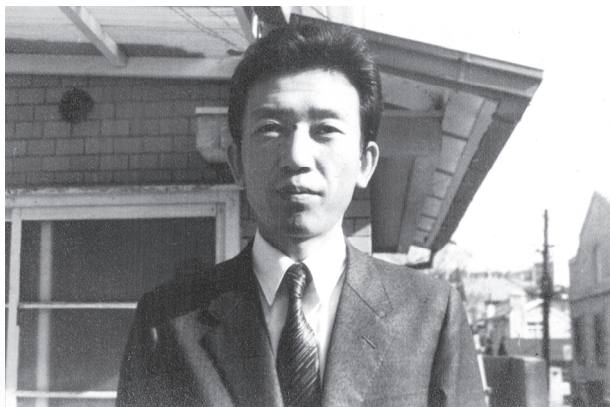
전후 한국 문학의 새 지평을 연 기념비작 '광장'에서 20세기 세계사적 운명과 지적 자산의 총체인 '화두'까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지적, 문학적 토양을 제공한다.

'광장' 이후 분단문학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들이 발표되어 한국 문학의 새로운 비약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오래도록 최인훈은 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작품으로 이어갔다.



5.16 군사쿠데타를 문제 삼은 ‘구운몽(1962년)’은 독재정권 하에서 개인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로운지 묘사한 작품이다. 전망이 닫힌 시대의 존재론적 고뇌를 그린 ‘회색인(1963년)’,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면서 파격적 서사 실험을 보인 ‘서유기(1966년)’, 일본의 식민지배가 계속되는 상황을 담아낸 신식민지적 현실의 위기의식을 풍자소설의 기법으로 표현한 ‘총독의 소리(1967년~1968년)’ 연작, 실험적 패러디 기법으로 고전을 새롭게 해석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작,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를 비롯한 우리말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고대설화가 품은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 문맥으로 재해석한 술한 희곡 작품들을 남겼다. 관념 소설을 정리하고 전통 설화를 재해석하는 등 현실과 예술을 한데 모으는데 한평생 매진했던 작가 최인훈은 살아 있는 지식인의 표상으로 삶과 소설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이어왔다.

1973년에는 <중앙일보>에 ‘태풍’을 연재하고, 미국 아이오와대학의 ‘세계작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후 4년간 미국에 머문 경험을 바탕으로 1994년 ‘화두’를 발표한다. ‘화두’는 해방 직후 북한 체제에 의해 상처를 받은 한 지식인의 삶을 역사와 나란히 놓고,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실존적 의미를 찾아 나서는 소설이다. ‘나’는 자신의 삶을 뒤훑고 끝내 자신을 고달픈 삶으로 내몬 원인을 제공한 소련과 미국을 여행하며 자신의 ‘화두’를 풀어간다. 그는 ‘화두’ 발표 이후 10여 년의 침묵을 깨고 2003년 비망록이자 서간체 형식을 띤 소설 ‘바다의 편지’(황해문화)를 발표할 만큼 50년 넘게 글쓰기에만 매진했다.



참혹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성찰과 사유를 담아낸 최인훈은 '문학 작품을 썼다' 기보다 차라리 '문학을 살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작가로 시대를 앞선 다양한 서사적 장치와 모더니즘의 실험적 방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문학적 상상력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전근대적인 상황과 양대 이데올로기의 틈새에서 존재의 고뇌와 내면의 성찰로 격동의 20세기 역사와 사투를 벌여 한국 문학사의 신개지를 열어 보인다.

분단 시대를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우리를 이끌었던 작가 최인훈은 병상에서도 놓지 못한 '남북관계'에 대한 염려를 "통일보다 재통일이 더 위대하다. 남북이 서로를 잡아먹을 듯했던 흐름을 거슬러 다시 통일이 된다면 참 위대한 일"이란 말을 남겼다.

작가 최인훈이 생전에 발표한 마지막 작품은 2003년 <황해문화>에 실린 단편 '바다의 편지'였다.

"나는 없어지겠지. 어쨌든 한번은. 그리고 떠나면 미래의 어느 날 나는 나이면서 이 우주가 그때까지 마련하고 있을 놀라운 기억 재생장치 -몇 천억 광년의 과거의 기억을 재생시키는 녹음 재생장치-를 갖추기도 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겠지. 그때 이 바다의 지금의 이 무섭고 슬픈 기억도 물론 재생되어 그때 내가 들을 수 있고 어머니도 들으실 수 있겠지. 그러나 이 무서운 이야기도 우주의 힘을 제압한 인류가 되어 있을 우리, 그때의 어머니와 나를 절망시킬 힘은 이미 가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자신의 무서운 과거를 우리는 무서운 남의 이야기처럼 감상하고 난 다음에 그 슬픔이 다만 과거 슬픔의 기록에 지나지 않음을 다짐하는 의식처럼 어머니와 나는 아주 잘 좋은 차를 마실 것이다."

- 『바다의 편지』, 524쪽

최인훈은 2017년 2월 24일 오후 열린 서울대 법과대학 학위수여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보라색 졸업가운을 입은 채 단상에 섰다. 그는 학장이 수여하는 졸업장과 법대를 상징하는 '정의의 종' 모형을 받았다. 학사모 밖으로 빠져나온 그의 흰 머리가 흘러간 세월을 실감케 했다.

195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지만 1956년 등록을 포기해 '미등록 제적' 처리됐다. 같은 해 육군에 입대해 통역장교로 6년 복무한 뒤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다. 학교측은 "최인훈 작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작품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는 작가정신을 숭고하게 기리고, 선생님의 정신을 서울법대의 전통적 가치로 수용하고자 마련했다"고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생전에 동인문학상(1966), 한국연극영화예술상 희곡상(1977), 중앙문화대상 예술 부문 장려상(1978), 서울극평가그룹상(1979), 이산문학상(1994), 보관문화훈장(1999), 박경리문학상(2011) 등을 수상했다.

2018년 7월 23일(월) 별세한故 최인훈 작가에게 정부는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금관문화훈장 추서는 1999년 보관문화훈장 수여에 이어故 최인훈 소설가에게 수여하는 두 번째 훈장이다. 냉전시대의 남북분단이라는 엄혹한 상황에 놓여있던 1960년에 남북분단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시대정신을 선보이는 소설 '광장'을 발표해 시대를 앞서나가는 등 한국 문학 발전에 기념비적인 공적을 세워 정부는 금관문화훈장 추서를 결정했다. (출처- 장석주가 새로 쓴 한국 근현대문학사-이광수에서 한강까지 한국 문학 100년의 탐험, 학교도서관저널)

## ▶ 대표작 '광장' 소개



4.19 혁명과 제2공화국이 탄생하는 시점에서 스물다섯 살 젊은이가 써낸 한 편의 소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독자의 사랑을 받고 숏한 비평가에 의해 되풀이해서 논구의 대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새벽’ 1960년 11월호에 실린 최인훈의 소설 ‘광장’은 해방 이후 분단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남북한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 한국 문학 사상 최초의 소설이며 전후문학 시대를 마감하고 1960년대 문학의 지평을 연 첫 번째 작품으로 기록될 만하다, 그만큼 이 소설은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한국 현대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된다.

분단 이후 한국인은 분단 이데올로기와 냉전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광장’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인간의 진정한 삶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비극적 세계관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는 월남 실향민으로서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자신의 체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 ‘광장’의 문학사적 의의는 인정하면서도, 죽음의 고비를 거듭 넘긴 끝에 선택한 이명준의 자살이 지나치게 허무주의적 도피로 빠져든 것은 아닌가 하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이로 말미암아 현실감과 구체성이 약화되고, 양쪽의 이데올로기에서 환멸과

허탈감을 느낀 뒤 현실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찾아내는 사람에 관한 묘사도 지나치게 감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다시 말해 ‘광장’은 4·19세대의 일원이 내놓기는 했지만, 사회 모순을 뚜렷이 인식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혁명적 주체로서보다는 현실의 질곡과 부패상을 단지 관념적 또는 사색적으로만 인식하는 지식인 방관자의 관점에서 쓰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발표 당시 원고지 600매 분량의 중편소설이었던 ‘광장’은 다음 해 800매로 늘려 단행본 ‘광장’(정향사)으로 출간됐다. 1968년 신구문화사의 ‘현대 한국 문학 전집’을 거쳐, 1973년 민음사에서, 1976년 ‘최인훈 전집’판(문학과지성사)으로 옮겨와 개작에 가까운 대폭적인 수정과 교정을 거친 다섯 번째 판으로 소개됐다. 이렇게 ‘광장’은 출판사를 달리해 펴낼 때마다 작가에 의해 새로 손질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데, 텍스트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훨씬 넘어선 수정이었다. 이후에도 그는 꾸준한 증쇄와 개정 작업을 거듭할 정도로 이 작품에 애정을 보였다. 그리고 ‘광장’은 전후 한국 문학 최고의 소설이며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최다 수록 작품으로, 한국 소설 중 가장 많이 다양한 외국어로 해외에 번역 소개된 작품이다.

4.19 혁명 이후 잠깐 동안 우리 사회에 허용된 바 있는 열린 지적 분위기가 없었다면 아마도 ‘광장’은 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독재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 들어선 장면 정권은 제힘으로 정권을 얻은 혁명 주제 세력이 아니었다. 그들은 혁명 주제 세력인 학생을 포함한 지식 계층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확대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한동안 혁신 세력의 진보적인 담론들이 꽤 자유롭게 개진된다. 이렇게 절묘한 시기를 타고 나왔다는 점에서 ‘광장’은 축복받은 작품이다.

최인훈은 단행본 서문에서 “아시아적 전제의 의자를 타고 앉아서 민중에게 서구적 자유의 풍문만 들려줄 뿐 그 자유를 ‘사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구정권 하에서라면 이런 소재가 아무리 구미에 당기더라도 감히 다루지 못하리라는 걸 생각하면서 빛나는 4월이 가져온 새 공화국에 사는 작가의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광장’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시각에 나온 것이다.

문학평론가 김현은 1976년 광장 전집판 해설에서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1960년은 학생들의 해이었지만, 소설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은 ‘광장’의 해였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장석주가 새로 쓴 한국 근현대문학사-이광수에서 한강까지 한국 문학 100년의 탐험, 학교도서관저널)

##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작품 읽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1930년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떠올리게 되는데, 당시 경성 산책을 통해서 지식인의 명상, 생각의 놀이를 펼쳐 보인다. 그 제목을 따온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소설도 구보씨의 시선에 비친 서울 곳곳의 풍경들 그리고 떠오르는 상념들을 펼쳐 보이고 있다.

그 상념들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정치적인 문제, 분단문제,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한 문제까지 깊이 있는 논쟁적인 문제들을 전해주고 있다.



〈최인훈의 구보씨와 박태원의 구보씨 표지〉

박태원의 소설은 어느 하루의 일을 다뤘던 박태원의 전작과 달리 대략 1969년 즈음부터 1972년 무렵까지의 구보씨의 하루들을 다루는 연작소설의 형태로 구성된 작품이다. 15편의 길고 짧은 소설들이 실려 있고, 이들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작품과 마지막 작품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작품들은 각각 하루의 일상을 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도 반복적인 구조를 지닌다.

구보의 일상은 제1장에서 1969년 동짓달 그림으로 시작하고, 제15장에서 1972년 5월 마지막 갈 무렵이라고 시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절의 변화도 언급하고 있다.

## 소설가 구보 인물 알아보기

### (1장 느릅나무의 풍경 15p)

이런 순간에 그는 자기 자신의 현실적 신분을 그다지 염려할 필요는 없었다. 한 월남 피난민으로서, 서른다섯 살이며, 흠아비고, 십년의 경력을 가진 소설가라는 그의 현실적 신분보다 훨씬 높은 데를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것은, 모든 직업인이 자기 일에 들어서는 참에 갖추어지기 마련인, 어떤 엄숙함의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 그는 말려 들어갔다. 그러자 언제나처럼 그 ‘말의 공간(空間)’은 노동자의 일터처럼 그에게 든든함을 주었다.

### (12장 다시 창경원에서 318p)

구보씨는 이번 전쟁—이라고 함은 1950년 6월에 시작된 전쟁 때 북한에서 흠뵈으로 피난해온 사람이다. 지금 구보씨는 나이가 서른에닐곱 될 터인데 그때라면 열너댓 됐을 때다. 아주 옛날이면 열너댓이면 장가들 나이지만, 이 무렵은 혼인은 훨씬 늦어 스무 살 중반쯤부터 제 나이지만, 그 까닭인즉 그때까지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보씨가 피난 올 때 나이로 말할 것 같으면 앞뒤를 가리기 어려운 철부지랄밖에 없다. 게다가 그리 총명한 편은 아니어서 되레 얼뜬 편이라는 것이 사실이었으니 이런 처지에 피난살이가 어떤 것인지 짐작할 만하지 않겠는가. 영도 다리 난간 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뜬 것은 다름아닌 이 구보씨 때문이었다.……중략……그의 고향 사람들은 향구에 들어온 미국 화물선을 타고 나온 것인데 구보씨네 가족은 배를 타러 나왔다가 부두의 아우성 속에서 서로 갈려버렸기 때문이다. 배가 아니라 물길로도 더러 나온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나와서 가족이 서로 합쳤다. 구보씨는 어느 연줄로도 그의 가족을 봤다는 얘기를 못 들었으니 고향에 남았음이 틀림없었다.

### (1장 느릅나무의 풍경 18p)

그는 세계라는 어질머리(어질병)와 자기 사이에 책이라는 완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책을 음악처럼 읽었다. 등장인물이라는 이름의 선율들이, 그의 책의 페이지 위에서 아름다운 어질머리를 풀어나갔다.

피난 수송선 속에서의 출렁거림, 그로 인한 '어질머리'는 그가 겪어야 했던 운명적 체험이었다. 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등져야 했던 것으로 탈출 당시에는 자각할 수 없었던 이 체험이 후일 자아에 가해진 세계의 횡포라는 자각으로 틀 지워질 때 이러한 횡포- '어질머리'가 "대체 어떤 까닭으로 그렇게 얹혔는가"를 알아보려는 노력이 그의 운명적 노력이 된다.

구보는 이러한 작가 최인훈의 체험들을 토대로 하여 쓰여진 인물이다. 소설가 구보는 당시 최인훈의 활동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연재소설로 쓰던 중인 1970년 11월에 최인훈은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서 구보는 여전히 독신을 고수하며, 작가 최인훈의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 소설가 구보에게 소설가란?

### (1장 느릅나무의 풍경 1p)

1969년이 다 가는, 동짓달 그믐께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소설가 구보씨는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깨는 참에 그의 머릿속에 무엇인가 두루마리 같은 것이 두르르 펼쳐졌다가 곧 사라졌다. 구보씨는 그것을 곧 알아보았다. 그것은, 오늘 하루 그가 치러야 할 일과였다. 다른 누구도 알아볼 것 없고 구보씨만 알면 그만이었던 만큼 그 두루마리는 눈 깜박할 사이에 사라졌다. 구보씨는 잠에서 깬 다음에도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 (1장 느릅나무의 풍경 11p)

문학의 미학적 구조는 영원불변하지만, 그와 함께 같은 구조에 이르게 하는 매개체인 환경은 바뀌기 때문에 작가는 이 환경에 대한 앎이 있어야 하며, 그러나 그 지식 자체는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익힌 다음에는 그것을 노래로 바꾸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 (12장 다시 창경원에서 319p)

현재 구보씨의 직업은 소설노동자인데 지금으로서는 구보씨는 이런 길에 들어선 것을 크게 뉘우친다. 소설 노동이 희한치 않다든지 해서가 아니다. 이 시절 사람이 손에 익힐 직업치고는 너무 어려운 직업인 까닭이다. 소설이라면 알다시피 세상살이 이야기 한 쪽지를 지어내서 세상 이치를 밝혀내고 인물마다 옳고 그름을 꾸미는 것은 우선 나중 일이고 그놈의 '세상 이치'와 '시비곡직'이란 것만은 환히 꿰뚫어 보아야, 몰고 다니는 타고 다니든 할 것인데, 이게 그게 아니다. '세상 이치'로 말하면 구보씨 어릴 때만 해도 햇바퀴처럼 환한 것인 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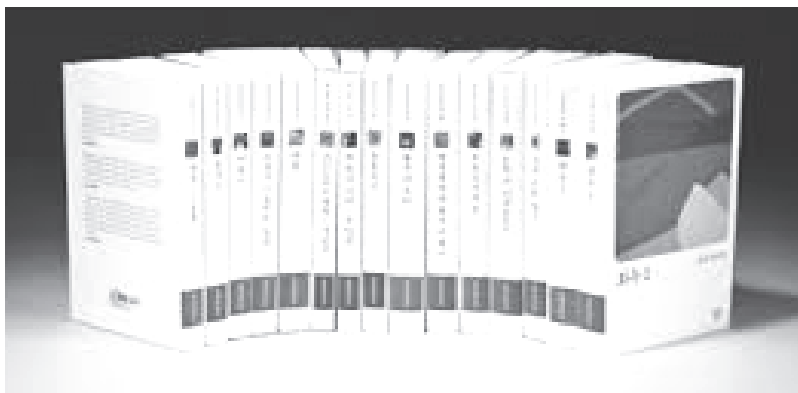
## 구보씨의 기억의 양금

### (1장 느릅나무의 풍경 23p)

그들은 덕수궁 뒷담을 오른쪽에 보면서 광화문 쪽으로 고개를 넘어갔다. 덕수궁 뒷문 앞을 지날 때 열린 문 사이로 석조전 오른쪽 옆구리가 보였다. 그러자 구보는 문득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구보는 어떤 여자와 이 길을 가다가 꼭 지금처럼 그 석조전을 들여다봤던 것이다. 그의 기억의 양극으로 가라앉아 있는 서울의 한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어떤 감회를 안겼다. 이렇게 한 도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라앉아 있고, 기억의 눈길에 얽혀 있으려니 생각하였다. 마치 밤하늘에서 비행기를 잡는 탐조등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의 기억의 하늘에서 집을, 거리를, 나무를, 우체통을, 어느 다방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바라보던 머릿속의 풍물은 전류가 끊긴 전기알처럼 물질의 백지로 돌아가는 것이리라. 구보는 중얼거렸다. 대단한 일이야. 산다는 건 대단한 일이야.

사람들은 어떤 풍경을 볼 때 풍경과 함께 살아오는 기억들이 있다.  
구보씨가 친구와 함께 걷다가 석조전을 바라보면서 감회를 느낀다.



〈최인훈 전집(개정판)〉-문학과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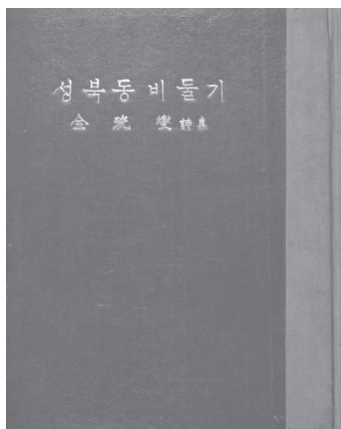
## 구보씨가 만나는 인물들

구보는 이런 얘기를 했다.

김광섭 시인의 〈성남동 까치〉 출판 기념회. 김광섭 씨는 뇌일혈로 죽을 고비를 넘긴 터라 매우 쇠약해진 모습이다. 구보 씨는 〈성남동 까치〉야말로 시에 위엄과 점잖음을 되찾게 해 준 시집이며, 김광섭 시인은 자유무애(自由無碍)한 시인이란 의미의 축사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이 꼭 대감들 앞에서 각설이 타령을 하고 나온 거지 같다고 스스로 불쾌감을 느낀다.~~~

구보 씨가 일과 중 만나는 인물들을 평론가 김관, 시인 이동기, 소설가 이흥철, 남정우. 이들은 실제 문학가들인 ‘김현, 이형기, 이호철, 남정현’을 변성명하여 칭한 것으로 소설 내내 이렇게 이름들을 변성명한다. 특이한 것은 김광섭의 경우에는 그 이름을 그대로 하면서 시집의 이름을 ‘성남동 까치’로 한 것이 특이하다.

주로 그들의 문학관, 예술관이 드러날 뿐 개별적 성격은 제시되지 않는다.



〈김광섭의 시집 성북동 비둘기〉

## ▶ 구보씨와 서울

## 1960~70년대 서울의 대중교통

## (1장 느릅나무의 풍경 9p)

이처럼 자기를 다스리면서 화해에 가득 찬 마음으로 아침을 맞은 구보씨는 아파트를 나와 버스정류장에 닿았을 때 이미, 그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기가 힘들러라는 것을 깨달았다. 구보씨와 마찬가지로 급히 어디론가 가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그를 제쳐놓고 좌석버스란 이름의 입석버스를 타고 수없이 떠났는데도 구보씨는 좀처럼 차를 잡을 수 없었다. 왜 전차를 없애야 했을까 하고 구보씨는 생각하였다. 대형전차를 더 늘리는 것이 이 교통난을 푸는 길이 아니었을까. 또 자동차만 하더라도 택시 대신에 이층버스 같은 것을 만들어 쏜다면 이렇게 거리가 자동차로 꽉 차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아니 전차의 대수를 자동차의 몇 분지 일만 늘렸더라면 이 버스와 택시는 없어도 됐을 것이다. 그러면 떠들썩한 소리와 매캐한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됐을 것이 아닌가. 전차만 해도 평등, 공적인 터-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 자동차란 것은 남을 밟지 않고 살지 못한다는 마음보를 가르치는 데 꼭 알맞을 만큼밖에 늘지도 않고 좁지도 않다. 자동차는 앉는 이, 불안 데, 싸움터, 짐 신기, 이런 것에만 쓰면 될 것이 아닌가. 나머지 사람은 모두 전차를 타면 된다. 대통령에서 유치원 어린이까지 전차를 타고 다닌다면 세상살이도 썩 부드러워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보씨는 더욱이 뒤로 처졌다. 마침내 그는 허둥거렸다. 10시까지 자광대학에 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대학의 문학과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기로 돼 있다. 여기서 자광대학까지 차로 가면 십 분이면 될 것이었고, 지금 시각은 9시 반이니 아직 늦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연재가 될지 몰랐다. 그는 택시를 기다리는 줄에 들어섰다. 길게 뻗은 그 줄도 구보씨를 넉넉히 절망시켰지만 그래도 여기는 질서가 있었다. 더구나 택시조차도 어울려 탄다는 그 운전수와 손님 사이의 야합의 버릇덕으로 구보씨는 이윽고 시간에 늦지 않고 자광대학에 닿을 수 있었다.



〈학교를 가기 위해 전차에 오르는 중학생들〉

‘좌석버스란 이름의 입석버스’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교통의 불편함과 교통난에 대해 언급하면서 구보가 생각하는 교통난 해결 방법을 두 가지 생각한다.

하나는 대형전차를 늘리는 것, 그리고 이층버스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다. 전차만 해도 평등, 공적인 것으로 그러나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결론은 전차를 없애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1960~70년대 서울은 국가 주도 개발로 빈과 부, 변두리와 도심의 경계가 선명해졌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1966년은 첫 분기점이다. ‘불도저 시장’ 김현옥과 함께 서울은 본격적으로 현대도시로 탈바꿈하기 시작한다. 이전 문학작품에선 전쟁 뒤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악, 거짓말, 사기, 허세에 가득찬 인물들”이 유난히 많이 등장했는데, 66년 이후론 이런 인간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서울의 중심축이 강남으로 이전되기 직전, 강북 도심권의 마지막 전성기를 기록한 문학작품일 것이다.

서울은 위로부터 강제적 변화를 겪게 된다. 전차가 1968년에 사라지고, 좌석버스란

이름의 입석버스가 생겨났다. 느릿느릿한 전차에 비해 버스는 전투적 출퇴근길에 어울리는 교통수단이었다. 사람들의 삶이 점점 경쟁 속으로 말려드는 모습이었다. 이후 1974년 수도권 전철이 개통할 때까지, 서울시의 시내 교통은 전적으로 버스에 의존하게 되었다.



〈시청앞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현장〉

## 야간통행금지

구보는 귀뚜라미 소리에 잠이 깬다. 어쩌다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깬 다음 끝내 다시 눈을 붙이지 못하고 새벽까지 일을 하고 10시쯤 일어나서 누운 채로 간밤에 쓴 원고를 집어 들고 읽어본다. 원고의 내용은 ‘야간통행제한’에 관한 글이었는데, 무엇보다도 한국 전쟁 때 월남한 피란민 구보 씨에게 통행금지제도는 일상 속에서 ‘전쟁’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보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나열한다.

**(제8장 팔로군 좋아서 평화야 204p)**

통행금지가 가까워지면 모든 사람이 조급해진다. 어디론가 떠나려는 사람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서로 교통의 순서를 다룬다. 택시는 금방 난폭해진다. 모든 서비스가 거칠어진다. 피란민들이 마지막 열차에 매달리는 풍경이다. ‘막차’ 그렇다. 이리하여 6·25의 얼굴은 밤마다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전쟁의 기억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웃음이 나온다. 하도 전쟁 속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평범한 것으로 알게끔 취해버린 것뿐이 아닌가.

**(제8장 팔로군 좋아서 평화야 205p)**

야간통행제한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밤의 시간. 삶의 절반을 몰수당한 우리는 시간이 우리를 한없이 슬프게 한다.……중략……슬픈 도회의 그렇지 않아도 슬픈 11월의 한밤 중 문득 잠에서 깨어 까닭 모를 노여움은 가슴에 복받쳐 아무 데고 거리를 쏘다니고 싶을 때 힘없이 주저앉아야 하는 밤의 금기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

그러나 1년 365일 중에 3번 정도는 구보를 슬프게 하는 통금이 해제되는 날이 있었다. 언제일까? 소설 속에서도 역사책을 읽는 것보다 친숙하게 서울의 근현대사의 따라갈 수 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역사에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러나 현재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변화의 계기들을 포착해 볼 수 있게 한다.



〈야간 통행금지로 인해 지키는 사람만 있는 세종로〉

#### (제10장 갈대의 사계 264p)

크리스마스 노래,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온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해방 전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무 날도 아니었다. 예수교도를 빼면. 해방 후 한국 문화를 말할 때 크리스마스는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된다. 해방 후 이날은 예수교도와 관계없이 모든 한국 사람들의 날이 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 사람들은 야간 통행 제한 밑에서 살아왔는데 크리스마스가 한국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은 이 통행 제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만은 야간 통행 제한이 걷힌다. 한 해 동안 하루만은 밤 시간에 나다닐 수 있다는 것은 큰 해방감을 준다. 그래서 이날은 실상 서양 풍속으로 치면 카니발이 된다. 크리스마스란 이름의 카니발이다. 이날에는 한국 사회의 모든 심층 사회 심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소용돌이친다. 막연한 해방감— 이것은 정치적 아니키즘이다. 젊은 사람들의 성적 해방감— 이것은 섹스의 아니키즘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대목 보려는 마음— 이것은 상업적 아니키즘이다.

## 문학과 예술

구보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어 샤갈특별전, 이중섭전람회, 영화 감상 등을 둘러본다. 그리고 단테라는 예술가를 동경해 단테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한다. 아마도 구보씨는 단테가 창조하는 예술이 정치적인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동경을 느낀 듯싶다. 양심 있는 예술가가 되고 싶던 구보는 그 시대에 지식인들이 해줬으면 싶은 역할들에 대해서도 역설한다.

#### (제4장 위대한 단테는 92p)

① 앞만 보고 말하면서 아주머니가 모퉁이 쪽으로 간다. 구보씨는 망을 보는 모양으로 그 자리에 남았다. 포장마차, 인디언—실컷 보는 간판에 「술저 블루」라고 붙었다. 「술저 블루」라. 네이비 블루니 하는 그 말인가? 극장 언저리는 늘 이국(異國)적이다. 서양 영화 간판. 커다란 배우의 사진. 그 밑에서 황색인들이 표를 사느라 바글바글 끓는다. 조계(租界)라는 느낌이다. 옛날 상하이나 홍콩 같은 데 변두리 극장의 모습 같다. 상하이나 홍콩에 가본 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틀림없을 것 같다. 한국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미국 어느 도시의 극장 앞에 늘어선 미국 시민들과 걸려 있는 간판 속의 한국인 배우의 대조에서 이런 느낌이 이루어질까? 글썄. 아니지. 주책 없음. 의 느낌.

(제5장 홍콩 부기우기 137p)

시민회관에는 인도 미술사의 간판이 걸려 있다. 그 아래를 사람들이 오간다. 구보씨는 극장 간판 아래에서 바글거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언제나 ‘홍콩’이라는 이름이 문득 떠오른다. 간판 속에서 커다란 클로즈업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아리안계 외국인 배우의 얼굴과 그 밑에서 와글거리는 노오란 몽고족의 대조가 조계(租界)라든지 ‘政廳’, ‘治外法權’, ‘原住民’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었다. 요즘은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부터 더욱 염서에서 보는 그 이국 도시의 모습을 닮아간다. 여자들의 화장은 아마 그런 닮아가는 모습의 으뜸이다. 모두 아리안계 여자의 모조품으로 보이게 하려고 피눈물 흘린 성과를 얼굴이라고 들고 다닌다.



〈광화문 지하도 공사와 시민회관〉

구보는 미국 영화에 빠져 있는 한국인의 모습을 우려하는 것이다.

구보는 우리 도시가 외국 도시를 닮아가는 모습과 점점 서구화 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 전통이 사라지고 외래문화에 잠식되어 새로운 문화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 한탄한다.

그렇다고 구보가 외래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되 어느 정도 적절히 소화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전통문화도 외국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제12장 다시 창경원에서 333p)

깃발이 우산꽃이 같은 반침에 꽂혀 있다. 궁중 의식에 쓰던 깃발이라 한다. 구보씨 눈에  
는 몹시 초라해 보였다. 유물이라니까 실지 쓰던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막대기  
라도 초라하고 깃발의 천이며 물감이며 모두 께죄죄하다. 아마 벼슬 낮은 졸개들이  
들고 다닌 깃발이겠지. 어떻게 된 놈의 빛깔이 저 모양일까.....중략.....입장료를 받아  
서는 어디다 쓰는 것일까.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방이 꼭 헛간 되물이고, 거기다 무슨  
보화를 차려놓아도 빛이 날 것 같지 않다. 문명이고 지랄이고 이거. 구보씨는 탄식하였  
다. 소제를 깨끗이 하는 것—이것이 문명이다. 더러운 것—이것이 야만이다.....중  
략.....이렇게 함부로 거들 바에야 돈 많은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형편이 피면  
거둬들이는 편이 되레 낫겠다. 측우기, 시계, 별자리—둘로 만든 기구가 있다. 다듬잇돌  
같은 데다 금을 긋고 점을 찍어서 만든 것이다. 이런 것도 먼지나 자주 털었으면. 돌이  
닿을까봐 아끼는 모양인가. 마패도 있고 낫그릇, 벼루, 자기 그릇, 자물쇠, 쇠몽둥이 따  
위가 있다. 쇠몽둥이는 과연 무시무시하다. 저걸 다루려면 여간 장사 아니고서는 안  
되었을 게다.

구보는 창경원 유물 전시장을 관람했다. 우리 선조의 유물들을 관람하며 한숨만 나온다.  
구보의 눈에 보인 유물들은 유물이 아니라 재활용 쓰레기장의 모습이다. 입장료를 받아  
어디에 쓰는지 관람객이 의심할 정도의 관리라면, 유물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창경원의 허술한 유물 관리에 분노하고, 이종섭의 전람회에서 우리 민족을 표현하는  
소와 천진스러운 아이들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제13장 남북조시대의 어느 예술노동자의 초상 349p)

이중섭은 구보씨와 같은 고향이요 지난 번 전쟁 때 피난 오기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구보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구보씨는 이중섭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동향인이라는 것 때문은 아니고, 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일 수 있는 동업자였다는 데서도 아니었다. 구보씨는 가다오다 들리는 그 이름이 거의 경건에 가까운 투로 발음이 되던 일과 거의 사랑에 가까운 억양이 스며서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언제나 느꼈기 때문이었다. 어느 사람이건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집안의 수재였던 그래서 문중의 촉망을 혼자 짊어졌던 요절한 사촌형님을 말하는 투가 되는 것이었다.



〈이중섭의 '도원'〉

(제13장 남북조시대의 어느 예술노동자의 초상 355p)

'桃園,' 가장 주목할 만한 그림이다. 누렁 흙빛이 주가 된 그림인데, 바다랄지 호수랄지 아니면 灣만이라는 느낌이 제일 가까운 물가에, 복숭아 나무가 있고 아이들이 복숭아를 따기도 하며 뒹굴기도 하면서 놀고 있다. 판화의 간접성을 느끼게 하는 수법으로

그렸다. 어느 작품하고도 다르다. 색깔로 말하면 한옥에 칠하는 단청 칠의 색감色感이다. 구보씨는 단청이 이 그림처럼 곱게 보인 기억은 없다. 구보씨는 한국의 옛날 그림을 한 장도 본 일이 없으므로 이런 계통의 색감이 전형적인지 어쩐지는 모른다. 어쨌건 굉장한 그림이다. 색깔과 선이 모두 한국 사람의 '桃園'은 정말 이러리라는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이 한 폭만 가지고도 이중섭은 장하다.

#### (제7장 노래하는 샤갈 190p)

샤갈의 말-나의 그림 속에는 옛날이야기도 없으며 寓話도 없고 民話도 없다. 나는 '환상'이나 '상징'이란 말에는 반대한다. 우리들의 内部의 세계는 모두가 현실이며, 어쩌면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현실적이다.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모두 환상이나, 옛날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은 自然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

#### (제7장 노래하는 샤갈 199p)

인류가 오랜 옛날에는 사용하였던 그 목의 힘살의 운동 기억을 상기(想起)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상기(想起),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없는 것을 불러내는 것. 나르시스의 능력이다. 그런 인간이란 어떤 인간일까. 말했다시피 '야누스'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이 신화의 인물이 바로 인간의 바른 모습이다. 야누스가 이형(異形)의 괴물인 게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이 반신불수일 뿐이요, 안면 마비증이다. 그들은 외눈을 자랑하는 슬픈 동물이다. 인간이 다시 야누스가 되는 때, 자기 자신인 그 신화인(神話人)이 될 때 인간의 마음은 참다운 기쁨과 평화를 찾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활의 태양이 빨리 문명의 궤도를 찾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남북 통일되는 것이다.

구보의 무의식에 월남하여 뿌리 내리지 못하는 피난민 의식이 화가 샤갈의 의식에도 있음을 그가 알아본 것이다. 샤갈도 그의 조국 프랑스를 떠나 미국과 러시아를 떠돌아다녔지만, 그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은 그의 그림에서 원형을 이룬 것이다.

샤갈의 그림에서 구보는 그의 마음을 읽고,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낀다.

샤갈은 미국과 러시아 생활에서 그림의 빛을 찾지 못했다. 그가 태어난 프랑스에 와서 그의 작품에서 색채의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작품에서 보이는 풍부한 빛의 움직임과 광선(光線)의 유희에 감동한다. 그가 찾고 있던 것을 고향에서 발견한 것이다. 구보는 이러한 샤갈의 그림에 감동하고, 샤갈의 말에 공감한다.

## 수송국민학교



〈1960년 4.19혁명 당시 거리로 나온 수송국민학교 학생들〉

1960년 4월 26일 오전 11시 45분, 덕수궁 앞에 서 있는 탱크 앞으로 동급생 전한승 군을 잃은 수송국민학교 어린이 10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달려왔다. 5-6학년쯤으로 보이는 이들은 선두에 “군인 아저씨, 우리 오빠 누나들에게 총부리를 돌리지 마세요”라는 애절한 플래카드를 들고, “어린 피에 보답하라”고 외치며 시청 앞으로 행진하였다. 이들은 군인들에게 “아저씨 군인 아저씨, 우리에게 총을 쏘지 마세요”하고 외쳤다. 이를 바라보는 군인들과 시민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노래’ 등을 부르며 행진하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계속 시위하였다. 전한승 군은 4월 19일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태평로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시위 중인 시위대에게 환호를 보내다가 경찰의 발포로 목숨을 잃었다.

구보는 창경원을 두 번 간다. 제2장 창경원에서는 집에서 원남동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 〈제12장 다시 창경원에서 329p〉

1972년 2월 하순 어느 날 오후 친구 사무실에서 깜박 졸다가 사무실 창문으로 내려다 보니 눈이 내리는 거리가 좋았고 무작정 걸어보고 싶었다.

구보씨는 수송국민학교 앞을 지나 조계사 뒷길을 걸어갔다. 이길 또한 서울 같은 데서

는 쉽지 않은 길이다. 지금도 이만한 것을 보면 한 십 년 전만해도 얼마나 조용했으  
 싶다. 게다가 이 골목에는 개로 지은 집들이 없는데 아직 초라해 보이지 않을뿐더러,  
 매우 실속도 있고 내력도 있어 보인다. 이 도시에서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 넉넉한  
 살림을 해오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집들이다. 한말과 일제 시대, 그리고 해방  
 후에-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모두 그럴듯하게, 유리하게 넘어서면서 살아왔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골목 같았다. '은금'이라든가 '주'라든가 '연금'이  
 라든가 하는 부르주아 사회의 신비한 부적들이 그닥 실감있는 풍속이 되어본 적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분위기는 드문 일이다. 구보씨는 조계사 뒤를 지나서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나갔다. 거기 네거리에서 구보씨는 잠깐 망설였다. 오늘 불일은 오전에  
 다 마쳤으므로 가봐야 할 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발이 내키는 대로-아마 남이  
 보기에는 의젓한 걸음으로 구보씨는 비원쪽으로 걸어갔다.

눈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한결 바빠 보였다. 눈이 내리는 대로 밟아서 아스팔트 길은  
 번들거렸고 차가 다니는 길에는 바퀴 넓이의 두어 곱 되는 물기 있는 자국이 나 있었다.  
 구보씨는 비원 앞까지 왔다. 거기는 비원 맞은편이었었는데 높은 건물이 새로 서 있었다.  
 이것은 고급 아파트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현관 유리 너머로 웅단을 칸 층계가  
 보였다. 여기도 잘사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있었다.



〈가든 타워 오피스텔〉

## 관훈동 헌책방

11시 후배 시인의 결혼식에 갔다가 평론가 김공론씨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택시를 타고 관훈동 헌책방을 둘러본다.

### (제9장 가노라면 있겠지 253p)

공일날 이렇게 별 탈 없이 만나서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좋은 일이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관훈동으로 가서 헌책방에 둘러보았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상도 하다. 자동차 많은 폭만큼이나 음식점도 많고, 술집도 많고, 학교도 많건만 책방은 그렇지 못하다. 이만한 사람이 사는 곳에 헌책방은 모두 해서 이 언저리에 있는 이것뿐이다. 동대문에 몇 집. 청계천에 몇 집. 그나마 청계천에 있는 것은 교과서뿐이다. 동대문 책방은 길이 넓어지면서 헐린 집이 많고, 그 안쪽에 있는 책방은 낡치기 책방들이다. 해적판 엉터리 책들이다.



〈통문관 모습〉

1934년 서울 인사동길 중앙통에 문을 연 통문관은 국내 현존하는 서점 중 가장 오래된 곳이다. 3대째 이어 오는 가장 오래된 서점. 현재의 통문관은 외벽을 한 차례 단장했을 뿐 내부는 그대로다.

## 창경원

구보는 창경원을 두 번씩이나 찾아간다. 일제가 창경궁을 없애고 동물원을 만들었다. 첫 번째 방문에서 그는 공작새의 춤을 났을 잃고 보면서 이렇게 적었다.

### (제2장 창경원에서 43p)

텅 빈 동물원의 한낮에, 꼬리를 활짝 펴는 그 모습은 좀 섬찟한 것이었다. 마치 꽃망울이 열리는 현장에 맞닥뜨린 때처럼, 어떤 외설한 모습이었다. '花開라는 낱말이 떠올랐다. 저 리듬, 까무라칠 만큼 아득한 어느 때부터 비롯한 버릇, 시무룩한 낮빛으로 꼬리를 잔뜩 펴고 있는 모습은 '공작처럼 거만한' 어찌구 하는 모습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그보다는 원수의 땅에 포로로 잡혀 왔으면서도 하루의 정한 시간에는 자기네 부족의 법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같았다.

1972년 2월 하순 눈 내리는 날 창경원에 다시 갔다. 거기서 북극 짐승 백곰 한 마리가 있었다.

### (제12장 다시 창경원에서 329p)

그의 평생에서의 그 액운의 날. 그러나 그가 장면을 외고 있을 리 없다. 그를 잡은 사냥꾼은 기억하겠지. 그 비극의 날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그의 두뇌. 백치. 흰 슬픔이다. 빈 종이의 슬픔이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자기 디엔에이의 바퀴자리를 따라 돌 뿐인 슬픈 헛일. 헛일. 헛일이라니? 알면 어떻다는 것인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창경원에 들어서 구보가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다가 사자 앞에 섰다. 그리고 사자를 보면서 또 상념들을 꺼내 놓는다.

### (제2장 창경원에서 49p)

안중근. 하얼빈의 사자 삶이 예술이 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던 위대한 한국인. 절륜한 용기. 절륜한 역사적 상상력. 적의 목줄기를 향해 치솟아간 한 마리 사자. 전봉준. 사자. 절륜한 용기. 절륜한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후각. 건강한 맹수의 감각. 적의 소재를

우렁당함 없이 알아낸 뛰어난 코, 귀, 눈, 적의 위장(僞裝)에도 불구하고 속지 않는 날카로움-코, 귀, 눈의. 다음이 호랑이다. 엄청나게 크다. 늑기도 했다. 몇 마력쯤이나 될까. 굉장한 짐승이다. 사자는 어딘가 '비장'한 데가 있는데 호랑이는 그렇지 않다. '선기(仙氣)'가 있다. 구보씨는 호랑이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떠올렸다.

## ‘신가(神歌)놈’

구보는 ‘신가(神歌)놈’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구보가 ‘신가놈’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와 그 나름의 의미를 알아보자.

### (12장 다시 창경원에서 324p)

구보씨는 길을 건너 원남동쪽으로 걸어갔다. 이쪽도 새집들이 별로 들어서 있지 않은 구역이지만 훨씬 ‘庶民’적이었다. ‘庶民’이라. ‘嫡庶’의 ‘庶’잔데 언제 어떻게 생긴 말인지 굉장한 말이다. 신문 같은 데서 덮어놓고 이 말을 쓴다. 또 ‘庶民’적인 성격이니, 한다. 모두 첩의 자손이란 말인가. 아무튼 이 언저리도 꽤 변하지 않는 구역이다. 구보씨가 걸어온 길목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나름으로 살고 있었다. ‘에익 神歌놈’ 하고 구보씨는 중얼거렸다. 딱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 같았다. ‘神歌놈’이란 ‘神’ ‘하느님’ ‘造物主’ 따위를 말한다. 언제부턴가 구보씨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심경 같은 것에 부딪칠 때, ‘에익 神歌놈’ 하고 뇌는 버릇이 생겼었다. 그저 두리둥실한 답답함이라든지 아리송한 것이라든지 한스러운 일이라든지 그럴싸하다든지 장하다든지 할 때면 이 말이 불쑥 나오는 것이었다. ‘쫓쫓’이라든지 ‘원 저런’이라든지 ‘맴소사’라든지 ‘오냐 그러기냐’라든지 ‘요것봐라’ ‘어렵쇼’ ‘그러면 그렇지’—이런 따위의 뜻을 가진 말로 구보씨는 쓴다.

### (제13장 남북조시대의 어느 예술노동자의 초상 341p)

그 모퉁이에도 한 십년 전에는 책방이 있었던 것을 문득 구보씨는 떠올렸다. 그리고 그 책방에 매우 아리따운 아가씨가 가게를 보던 일도 떠올랐다. 그러자 구보씨는 마치 그 아가씨가 자기 애인이거나 했던 것처럼 쫓르르해지는 것이었다. 실은 아가씨라기보다 십년 세월이 거꾸로 휘말려서 툭툭 뭉치더니 홀연 아가씨로 둔갑한 것처럼 느꼈던

것이다. 분명히 그 아가씨는 육신이 아니라 '시간'의 화신이었다. 왜냐하면 아가씨에게서 십년의 세월을 빼고 보니 아가씨는 간곳없고 그 자리에는 양품가게가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황차 시간이 제가 무엇이란대 이런 기막힌 요술을 부리는 것일까. 구보씨는 '에익 神歌놈'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 (제5장 홍콩 부기우기 115p)

현실을 늘 선례에 의해서 이해하는 상고주의자요, 관념론자인 구보씨는 암호들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다.……중략……이스라엘과 아라비아의 옛날부터 사람 사는 집 문간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표를 해 놓은 역사가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보씨는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피난민이자 독신자인 구보씨에게는 이러한 주택가는 늘 두려움에 가까운 힘을 느끼게 한다. 하숙집을 나서서 한길까지 사이에 처마를 잇던 이들 사람집을 좌우로 지나치면서 구보씨는 에이 신가놈, 하고 속으로 뇌까리곤 한다.

#### (제6장 마음이어 아무져다오 159p)

구보씨는 종로까지 가는 사이에 차 안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눈빛이 집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잊어버릴세라 이 고장에 사는 팔자를 되새겨주는 사건이 던진 뒤끝이 보인다.

에익 신가(神歌)놈. 에익 신가놈. 구보씨는 몇 번인가 뇌까렸다. 공비는 모두 제 손으로 폭사했다고 하지만, 공비가 서울 시내까지 그토록 쉽사리 왔다는 일만은 달라진 것이 없다. 스무 해전 6월 그날에도 이렇게 전쟁은 비뚤했을 테고, 언젠가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단 말이겠지. 그리고 받으러 가는 돈이 피난 떠날 밑천이 될 수도 있단 말이겠지.

#### (제7장 노래하는 사갈 179p)

이 '천황—스탈린—이승만'이라는 세 이름 속에서 구보씨의 반생의 정신은 어리둥절하면서 지나온 것이었다. 하늘에 높이 솟아있던 이런 이름들이 연이어 떨어지는 것을 보아오느라니 구보씨 같은 썩 훌륭하지는 못한 머리에도 무엇인가 짙이는 바가 있었다.……중략……그렇게 해서 지금의 구보씨에게는 허망한 뉘우침만이 남아있었고 뉘우침의 모두가 자기 탓은 아니라는 느낌을 집짓 뭉뚱그려서 가끔 “에익 神歌놈”하고 내뱉어보는 것이다.

#### (제8장 팔로군 좋아서 핑호아 216p)

'에익 神歌놈' 하고, 구보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중략……뒤집어 말하면 구보씨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학

교에서 배운 것은 중학교에 가면 거짓말이 되고 중학교에서 배운 것은 고등학교에 가면 거짓말이 되고—이렇게 어제의 거짓말에 오늘 놀라는 생활이, 구보씨가 겪은 생활이었다. 그런데도 이 거짓말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세상이 자기 삶을 책임질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얘기였다.……중략……전하는 말에 ‘神’이라는 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니 그렇다면 때려죽일 놈은 그 ‘神歌놈’일 수밖에 없다. 지금 구보씨가 신문을 보고 ‘에익 神歌놈’ 하고 속으로 중얼거린 것은 이런 까닭에서였다. 구보씨는 ‘닉슨政府 경악’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공갈’하고 역시 속으로 중얼거렸다. 공갈이란 말은 아이들이 쓰는 말로 거짓말, 업살- 이런 말이다.

#### (제9장 가노라면 있겠지 232p)

×일. 개입.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고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주변에서 별로 이렇다 할 관심이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난 일인데도 어딘지 겉도는 느낌이다. 신문이나 잡지에 나는 글이나 보도도 알차지 못하다. 어딘가 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설하는 느낌이자, 당하는 일을 느끼는 진지함이 없다. 쓸데없는 일까지 너무 보도되는 바람에 정작 소식다운 소식이 있게 돼도 놀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일까. 그럴 지도 모르겠다.

이리를 보았다는 거짓말을 자주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리에게 잡혀먹은 아이의 얘기처럼. 그러나 그뿐이 아니다. 이런 큰 정책 결정이 거두절미하고 불쑥 나온 데 까닭이 있을 것 같다.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다. 이런 일은 민간 운동의 모습으로 오랫동안 계몽이 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다. 이치가 안 통하는 세상에서 이치밖에는 할 소리가 없는 신세처럼 처량한 일이 없다.

‘神歌놈’ 네 이놈.

#### (제13장 남북조시대의 어느 예술가의 초상 345p)

美世記者公平壤訪問/金日成回甲前後, 日紙北傀許可했다고報道/[워싱턴=24日發]

……중략…… 구보씨는 가져온 커피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생각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겠으나 굳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에익 神歌놈’하는 것이 될 터였다. 그것은 무슨 호쾌한 역정도 아니요, 사무친 한도 아니요, 불 같은 노여움도 아니요, 바람 같은 웃음도 아니요, 그 모두가 합친 데다가 무엇인가 거시기 어떤 것을 곁들인 그런 것이었다. 아마 봄새벽을 모르는 잠결에 깨고서도 종잡히지 않는 꿈의 맛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 논평 같은 모습으로 말해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대신 구보씨는 히히히 하고 무시무시한 웃음을 방긋 웃었다.

## 참고문헌

---

-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문학과지성사, 2016  
방민호 책임편집, 최인훈 오디세우스의 항해, 예피파니, 2018  
장석주, 장석주가 새로 쓴 한국 근현대문학사(이광수에서 한강까지 한국 문학 100년의 탐험), 학교도서관저널, 2017  
박해랑, (최인훈 소설의 인물 심리 연구) 비극적 세계극복과 부활의 힘, 2016  
김재관 장두식, 문학 속의 서울, 생각의 나무, 2007  
김성렬, 최인훈의 패러디 소설 연구, 푸른사상, 2011  
이민영,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구(구보의 서명과 ‘후진국민’의 정체성), 한국소설학회, 2015

## ▶ 해설자 소개

해설자 : 최서향



## 약력

-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도시문화지도사
- 2017년~2019년 서울미래유산 ‘구보씨의 경성 기행’, ‘대중문화 1번지 홍대’, ‘정릉천 따라-문학예술의 길’, ‘정동의 근대교육’, ‘청계천 물길’, ‘북정마을 가는길’, ‘동촌’, ‘근대역사의 기억-남산과 장충동’, ‘서울의 물길’ 등 다수 해설
- 2018년~2019년 디지털인문도시: 순성의 복원 인문강좌답사시리즈 <한양도성 순성탐방> 해설
- 2019년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근현대사 강의 및 탐방
- 서울시교육청 서울을 걷다(민주역사시민사회 올레길) 기획
- (사)한국의 재발견 우리궁궐지킴이 창덕궁, 경희궁 해설사
- (사)서울KYC 도성길라잡이 한양도성 해설사
- (사)서울KYC 평화길라잡이 서대문형무소 해설사

## ▶ 2019 서울문학기행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한국의 대표도시 서울과 서울사람의 정체성을 1920~1960년대 출간된 문학작품 현장 탐방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학향유의 기회를 제공

### 추진방향

서울과 서울사람의 삶을 묘사한 작품 속 현장과 작가들의 체취를 작가, 문학평론가,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통해 찾아보는 본격 문학탐방 프로그램을 추구

### 사업운영

- 사업기간 : '19. 6.12 ~ 11.30(총 16회 운영)
- 참가대상 : 서울시민 640여명 (회당 40명)
- 운영 : 총 16회 중 평일(수 10시) 8회, 주말(토 14시) 8회로 분리 실시해 직장인과 학생 참여 유도, 혹서기인 8월 1회는 야간(18시) 기행
- 주요내용
  - 지역별 서울문학유적지 탐방
  - 서울소재 문학관 및 집터 탐방
  - 문학인 묘소 및 시비 탐방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culture)에서 선착순 마감
  - 문의 : 02-772-9069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www.suci.kr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Seoul Urban Culture Institute association, inc.

## 설립목적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서울 고유의 도시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미래 서울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취지를 달성하고자 평생교육,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노력. 특히 서울 고향 만들기, 서울역사문화학교 운영, 서울도시문화 지도사 양성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 설립경위

2016년 4월29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음.

## 실적

- 2016년 7월 25일~8월 31일까지 제1회 서울도시문화지도사 1,2,3급을 모집, 9월 19일 1급, 2급, 3급 등 각급 지도사 50명을 배출.
- 호현당 선비체험 캠프(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16년 7월~8월 3회, 서울시내 초등학교 80여명 대상 운영)

-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2016년 9월~10월 2회, 서울시민 60여명 대상 답사)
  - 종로역사인물 열전(종로구청, 2016년 10월~12월, 10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행사)
  - 서울골목탐험대 운영(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년 5월~10월 진행 중 5개 조 25명 운영)
  - 언론인 역사생태탐방(삼성언론재단, 2017년 5월, 현역 언론인 4개조 70명 운영)
  - 2017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7년 5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25회 탐방 1000여명 참가)
  - 2018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8년 5월~12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1400여명 참가)
  - '디지털 인문도시 프로젝트: 순성의 복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2018년부터 8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20개 인문학 강좌 주관)
  - 2019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9년 4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진행 중)
- 참가신청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







## 2019 서울 문학 여행

---

발행처 :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28-3  
02) 772-9069, [www.suci.kr](http://www.suci.kr)

발행 및 편집인 :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원장 노주석